
DEMO 보고서

만약 우리였다면

민주화 운동 속 대학생의 발자취를 찾아서

2022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야 여행가자

김예본 (조장) 이화여자대학교

조원 : 김희진 상명대학교

김아린 경기대학교

박정희 경기대학교

제출일 : 2022.10.04

탐방지 : 서울, 부산

[20220615.수요일_ 답사 전 첫 회의]



<2022 민주야 여행가자!>에서 이룰 탐방 및 조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는 같은 모교 출신의 친구들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만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은 팀원 모두 학교 정규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 뿐이었지만 종종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면 시사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활동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모이게 되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될 미래를 함께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결정 사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인 "DEMO"는 중의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democracy'의 줄임말이자 데모 그 자체로도 시위를 의미하여 민주항쟁에서 필수적인 활동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식 출시 전의 음원이나 게임을 테스트 받기 위한 목적의 버전과 같이 아직까지는 민주주의를 앞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2022 민주야 여행가자!>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향상을 기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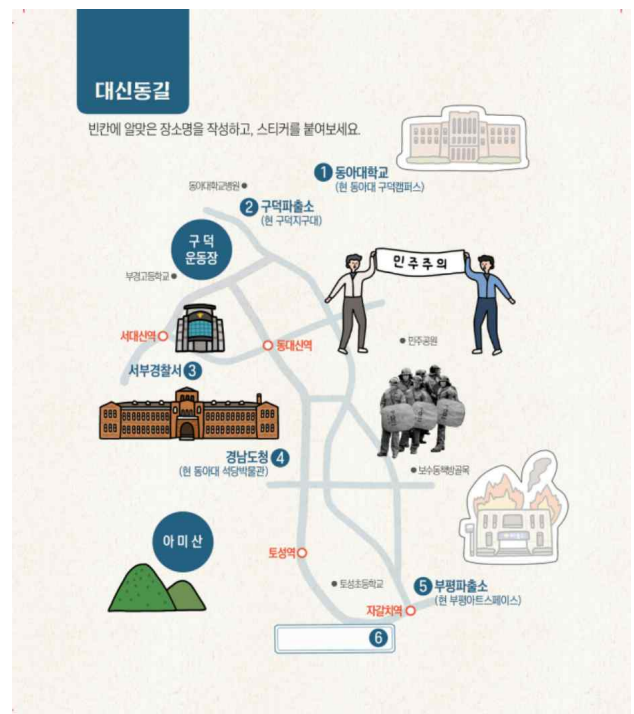
저희는 민주주의를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접하기만 했지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의 역사와 향기를 체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팀명인 "DEMO"처럼 민주주의를 앞에 있어서 미숙한 상태인 저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번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피부로 느끼고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를 체험을 통해 정립하고자 합니다.

팀원 모두 22살로 사회를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국이 혼동되거나 변화될 때 대학생

으로서, 성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택해야 할 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나 장애인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민주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망설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 시기 저희의 또래 즉, 대학생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탐방 주제인 '민주화 운동 속 대학생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 기대됩니다. 힘든 정치적 시기 가운데 서로 힘을 모아 목소리를 냈었던 과거 대학생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보면 그에 긍정적 자극을 받아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2 민주야 여행가자!> 탐방 주제를 "민주화 운동 속 대학생의 발자취를 찾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많은 대학생 참여 민주항쟁 중 '부마 민주항쟁'은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주항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항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항쟁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가 뜻 깊다고 생각되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항쟁 당시 대학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갔던 거리를 함께 걸어보며 그 향기를 느끼고자 계획하였고 부마 민주항쟁을 상징하는 장소 뿐 아니라 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나 동상 등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코스를 설정하였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현장탐방과 함께 온라인과 서울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쌓고 부산에서 대학생 운동의 흔적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역사관' 등의 온라인상 사이트와 서울에 있는 여러 박물관, 기관에서 민주주의의 개념, 역사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대학생 운동이 이루어진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를 방문하여 그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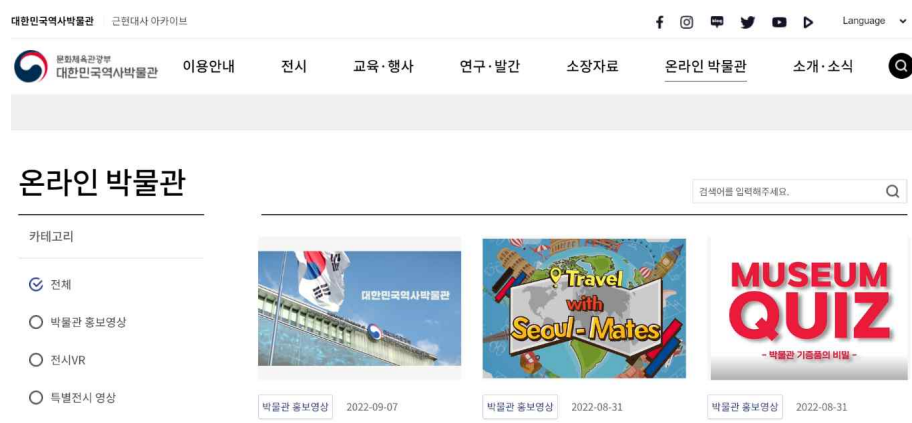
대학생들이 시위했던 코스를 위의 사진처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팀원 모두 이번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그 지식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20220823.화요일_중앙선거위 사이버역사박물관(온라인)]



사전지식 없이 바로 탐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탐방에 들어가기 앞서 온라인으로 중앙선거위 사이버역사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중앙선거위 사이버역사박물관을 통해 선거의 역사와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0823.화요일_대한민국역사박물관(온라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온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전시VR이 있어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관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온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들, 과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20823.화요일_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의 생생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곳에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건립부터 선진화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이번 여행의 테마인 부마 민주항쟁과 그 배경인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후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교육은 사회적으로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개인에게는 지위상승의 통로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 1970년대부터 대학교의 수와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하여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신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직접 뽑고,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체제를 통해 영구집권을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학생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자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민주인사를 투옥하거나 해직하기도 하였습니다.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에 선언문이 배포된 것을 시작으로 시민 단위 대규모 유신 반대시위로 확대된 부마 민주항쟁으로 촉발된 유신체제의 균열은 중앙정보부장의 총란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커지며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시민항쟁이자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유신독재의 붕괴를 아래로부터 촉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유신체제의 종말로 인해 민주화된 서울의 봄이 올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1980년 5월 계엄령을 확대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후에 국가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억압에 맞서 대학생들의 저항이 이어졌으며 민주화 세력은 직선제 개헌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대한민국의 건립부터 선진국으로의 도약까지의 과정, 그 중에서도 부마 민주항쟁의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까지 이어서 살펴보면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의 민주항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마항쟁의 시작점이 대학교였다는 점이 기억에 남고, 대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용기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일구어 낸 민주화가 얼마 가지 못해 전두환의 군사반란으로 인해 망가져 5.18 민주화 운동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도착



부산에 도착하여 정식적인 탐방 전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동안 쌓였던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부산역



근처 맛집으로 유명한 초량밀면을 먹었습니다.

유명한 집이라 그런지 줄도 길었지만 기다린 만큼 맛있게 먹고 숙소에 짐을 맡긴 후 탐방을 위해 온천장역으로 출발합니다.



산업도로-온천교사거리 도착

산업도로에서 출발하여 온천교사거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온천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거리 특성상 도로에 차가 많이 다녔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하였을 상황을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상 곳곳에 역사의 전유물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래경찰서





-부산대학교 도착

동래경찰서까지 지나 부산대학교에 도착하여 민주적 활동을 기념하는 비석과 그 주변을 탐방하고 부산대학교 내부 코스를 걸었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학생들은 독재정권을 타도하자는 목적으로

부산대학교를 행진했습니다. 학생들이 걸었던 코스(상학관-인문사회관-도서관-정문-사대부고-운동장-구정문)을 걸으며 그 당시 학생들이 가졌던 민주의식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자 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크기가 큰 대학교라 스쿨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쟁 당시의 대학생의 의지가 담긴 시위 코스를 고스란히 느끼기 위해 해당 위치를 직접 걸어서 이동하였으며 언덕도 많고 더위도 강렬했지만 그 이상으로 뜨거운 시위의 열기와 희생 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느껴보며 한발 한발 나아갔습니다. 방학 중이라 학교는 한산한 편이었으며 방학임에도 도서관에 나온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넓은 학교를 누비면서 만약 본인이 부산대학교 학생이라면 굳센 저항 정신을 지녔던 선배들을 존경함과 동시에 같은 대학의 학생으로서 자랑스러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20220825.목요일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시위 소식을 전해 듣고 시위대에 합류한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정신을 느껴보고자 동아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이후 무력제지와 항쟁이 일어났던 구덕 파출소, 서부경찰서, 경남도청, 부평파출소, 충무동 로터리를 걸으며 당시의 억압과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행보를 따라 걸으며 우리가 그 당시의 대학생이었다면 동아대학교 학생들 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을 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다 민주적인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맞서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0919_국회의사당&국회박물관]





국회의사당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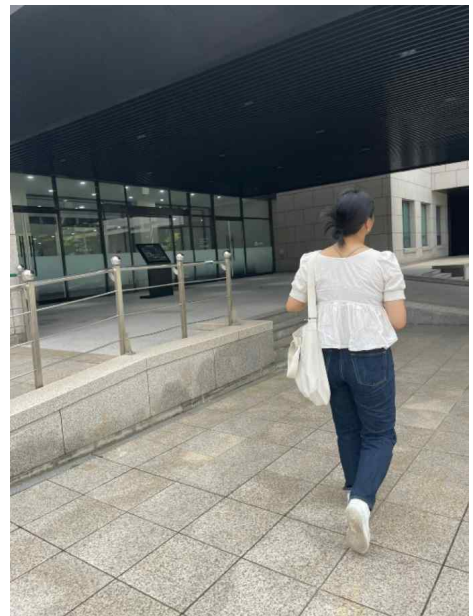
[20220919.월요일_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로,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실을 비롯하여 국회 기관인 의장실·부의장실·교섭단체실과 소속기관인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부속시설인 의장공관·의원회관 등의 건물을 말합니다.¹

국회의사당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박물관'을 방문해 국회의 역사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¹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ks.ac.kr).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였을 때 처음 방문하다보니 어떠한 방식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철문 앞에서 경찰분들이 통제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중 산책도 하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철문 앞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소를 말하듯 시위를 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광경을 마주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마음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소신을 밝히고 목소리를 내어 공유하는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문제 제기 활동을 시작으로 더 나아가 실제 사회에 큰 영향으로도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박물관 도착





국회의사당의 국회박물관은 임시의정원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활동과 의회민주주의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1998년 헌정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3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지어졌습니다.ⁱ

국회박물관과 국회의사당을 잇는 셔틀버스가 있었는데 저희는 내부 정취를 느끼기 위해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하면서 건물들과 국회를 위한 교통 수단 등 다양한 풍경과 정갈하게 꾸며져 있는 환경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 한발짝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 체감되어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국회박물관은 정해진 시간에 방문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가 무료로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전시되어 있었으며 과거에 민주활동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었던 문서뿐만 아니라 그를 재현한 모형들과 사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제작된 자료들을 통해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인상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먼 과거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 감동적이기도 하고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고귀한 의지와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 모두를 새삼스레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사상을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ⁱ [박물관소개 | 국회 박물관 \(assembly.go.kr\)](http://assembly.go.kr).

[여행 후 팸플렛 제작]

대학생을 - 위한 민주주의 여행.ZIP

이번여행 어디로 갈까?

부산대학교

그날에 선언문이 뿌려지고 상경대와 도서관 앞에서 시위 시작해 시내로 진출 (윤창고)
2020년 새벽달도서관 앞에 "민주언덕" 조성



📍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동아대학교

동아대 그늘에서 시위 시작해서 시내로 진출(대신동거/로터리) 피상계영 삼포 등 군대를 이용해 시위대 진압
이어서 민주지 학교 시위의 발착점이 되어 공판대로 이어져 부산에 이어 부산까지 시위가 퍼져감



📍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국회박물관

임시의정원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활동과 의회민주주의의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있음



📍 위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방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대한민국 발전사를 시대별 3부로 나누어 전시되어 있음



📍 위치: 서울 동로구 세종대로 198



부산에서 민주주의 박사되다!

1일차 여행지 추천

부산대학교

특강정원을 리포터하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활동할 코스를 필요로 학생들이 가진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업도로 - 부산교육대학 앞 사거리

위 코스는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서 나와 활동하는 코스입니다.
코스를 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학생들의 열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일차 여행지 추천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시위 소식을 전해 듣고 시위대학에 합류한 동아대학교 학생들을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덕파출소 - 충무로터리

위 코스는 특별히지와 방향이 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국경과 민주주의 열기를 잘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익숙한듯 낯선 서울 민주주의 탐방

1일차 여행지 추천

국회박물관

임시의정원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활동과 의회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2일차 여행지 추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국 근현대사를 담은 박물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민주국가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접은 앞면

대학생을 - 위한
민주주의
여행.ZIP



한쪽만 핀 앞면

대학생을 - 위한
민주주의
여행.ZIP

익숙한듯 낯선
서울 민주주의 탐방

1일차 여행지 추천

국회박물관

한시와영문본의 한자지표 국문 발음
과 국회의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를 제공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2일차 여행지 추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국 근현대사를 알음 박물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통해 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민주주의가
로써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민주주의 박사되다!

1일차 여행지 추천

부산대학교

북대정문을 히로히로는 북쪽으로 학생들이
정당한 장소입니다.
학생들이 올랐던 포스트를 걸으며 학생들이
가장 큰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산업도로 - 부산교육대학 앞 사거리

이 포스트는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서
나와 정당한 포스트입니다.
포스트를 걸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것과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일차 여행지 추천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시위 소리를 경청하고 시위대학
교에 방문한 동아대학교 학생들을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덕파출소 - 충무로터리

이 포스트는 부하까지와 열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경찰과 민주
주의를 걸으며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는 장소
입니다.

-1-

한쪽만 핀 앞면



접은 뒷면

이번여행 어디로 갈까?

부산대학교

그날에 선연들이 부하하고 상경대학 도서관 앞에서 시
위 시위해 시위로 진을 (문장고)
2020년 새학년도서한 앞에 "민주연대" 조성



☞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동아대학교

동아대 그날에서 시위 시위해 시위로 진을 (문장고) (문장고)
비상계엄 선포 후 문장을 이동해 시위로 진을
이에서 민주주의와 시위의 열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 부산
에 이어 민주주의 시위가 계속될



☞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국회박물관

임시의정원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활동과 의회민주주
의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관 전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거창기부터 오늘날까지의 대한민국 발자취를 시대별 3부로
나누어 전시되어있음



☞ 위치: 서울 동부구 세종대로 198

부산에서 민주주의 박사되다!

1일차 여행지 추천

부산대학교

북강당을 히로히로는 북강으로 학생들이
함께한 장소입니다.
학생들이 함께한 코스를 걸으며 학생들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산업도로 - 부산교육대학 앞 사거리

이 코스는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서
나와 걸어온 코스입니다.
코스를 걸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학생들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2일차 여행지 추천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사위 소식을 전해 듣고 동아대학
교에 방문한 동아대학교 학생들을 장소를
노출 수 있습니다.



구덕파출소 - 충무로터리

이 코스는 부둣길과 달빛이 들어온
터입니다. 그 당시 경찰과 민주
주의 물가를 볼 수 있는 장소
입니다.

-1-

익숙한듯 낯선 서울 민주주의 탐방

1일차 여행지 추천

국회박물관

임시회관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활동
과 국회의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
을 보관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2일차 여행지 추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국 근현대사를 담은 박물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둘러보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민주주의
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느낀점]

김희진: 민주주의에 대한 학술적 고찰, 현장 탐방을 통한 더 깊은 이해와 습득 자체로도 뜻 깊은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많이 친하고 의지하는 친구들과 첫 여행을 이번 활동을 통해 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 코스를 걸어보면서 다양한 대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활동이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김예본: 민주주의 여행 계획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과연 여행을 통해 민주주의 지식, 의식을 쌓을 수 있을지, 민주주의 탐방 여행이 단순 여행보다 흥미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부산대, 동아대와 같은 장소를 걸어보며 그 시절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느껴볼 수 있었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같은 장소를 돌아보며 그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민주주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즉, 여행기간 동안 민주시민으로서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야 여행가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과의 우정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도 쌓은 거 같아 매우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김아린: 이번 여행은 여행지로 각인되어 있던 곳에 새로운 의미를 친구들과 새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재 있는 장소도 민주주의를 위한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진 않을까 생각해보며 주변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 일상에 감사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

어 형태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자유, 완전한 자유를 위해 고군분투 중인 분들을 통해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여행이었다 생각합니다.

박정희: 민주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 걸었던 코스는 특별한 장소보다는 평소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학교, 경찰서 등이 많았는데 그 모든 장소에 민주항쟁의 시간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민주화를 향한 노력들은 과거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민주 항쟁의 흔적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고 우리도 민주주의를 위해 당시의 대학생들처럼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도 노인,장애인과 같은 소수의 약자들은 민주주의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소수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관심을 쏟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 함께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